

특별취재

# 과선교 재가설 국비지원 지연

# 권재민 부군수, 국비지원 총력

김제 아이코리아, 결손가족과

가정화목찾는 힐링캠프 개최

아이코리아 김제시지회(회장 김현례)가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를 초청하여 가정의 화목을 찾는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김제시 양성평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추진된 행사는 김제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아이들과 부모, 아이코리아 김제시지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훈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인심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치즈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즐거운 시간을 갖고, 참여자간 마음을 교감하는 시간으로 보낸 후, 벽골제 명인학당 훈장으로 부터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하여 새만금 시대 김제인의 밝은 미래와 원대한 꿈을 마음에 그리는 등 하루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김현례 아이코리아 김제시지회장은 "결손가정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아팠었는데,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갈 기회가 주어져 너무 기쁘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생활불편사항 처리반 운영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달 29일 9개반 33명으로 구성된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반」을 축산면 서포리 원기마을 사회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 운영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해결하는 현장처리반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었다.

지난 6월 운영시 사회취약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기점검반은 아침 일찍부터 출동해서 노후 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전구·등기구·전선·콘센트·스위치 등을 교체하거나 꼼꼼하게 수리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격려를 받았다.

청소반은 전기점검반 활동시 나온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더불어 집안청소와 정리정돈을 시행해서 무더운 날씨에 사회취약계층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종자생산 단기교육생 모집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민간육종연구단지과 종자생명연구단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기초인력, 재배관리 인력 수급과 급변하는 세계농업의 시장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고취로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2016년도 종자생산 단기과정(2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종자생산 단기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8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매주 월·화요일에 10회 40시간 동안 종자생산의 실질적인 이론강의와 현장학습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 산림병해충방제 '총력'

정읍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은 물론 돌발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지상방제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가로수, 그리고 녹지대의 병해충 방제활동을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병해충 방제차와 병해충 예방단을 운영 중에 있다"며 "특히 7월과 8월 생활권 주변 녹지대와 주요 도로변 수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미국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산림해충이 발생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발생 초기에 진압,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집중방제 대상은 가로수(연장 163.6km.) 공원 15.2ha, 도시 숲 2.6ha, 기타녹지 10ha, 소나무 임지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교육 안전성 E등급으로 붕괴위험 있어 건의... 정부 문제해결 소극적

김제교육(과선교)가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으로 재가설이 시급하지만 김제시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비지원 마저 불투명하여 붕괴위험 속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철도청이 1985년 준공·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 김제육교(과선교)는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며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써 2014년 9월부터는 차량통행 제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위험스럽게 방치되다시피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김제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5만여명 넘게 서명을 받아 국회, 국민

권익위원회, 국토부등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 김제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비지원 건의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재난사고 위험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로서는(현재 10.25%) 시 자체 예산만으로 재가설은 꿈도 꾸지 못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가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2012년에 국비지원 근거(철도안전법 개정)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재부의 부처 간 이견과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여 4년 가

이 지연되면서 우리 주변의 재난위험교량이 국민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김제시는 관계자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2011년 왜관철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제육교 재가설공사가 국비지원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에 도 안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10만 김제시민은 분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제육교(과선교) 국비지원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 부응과 국민안전에 가장 우선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농협 농업인 한방 무료진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진무교수를 비롯하여 한방의료봉사단 녹수회 회원 40여 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 부안농협, 농업인에 한방 무료진료

부안 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조합원은 물론 관내 8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펼쳐 지역사회의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부안 농협 농업인 한방 무료진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진무교수를 비롯하여 한방의료봉사단 녹수회 회원 40여 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한방 무료진료는 개별 건강검진과 내과계열(소화기계통,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비뇨생식기 계통) 부인과계열(순환기계통, 신경계통, 감각기장애)로 구분하여 진료하였고 증세에 따라 침, 뜸, 부항 등 시술과 증상에 따라 약품을 처방하였다.

진료를 받은 박 판술씨(70세 부안읍 행정리)는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한방 무료진료를 해줘 정말 고맙다"며 "농번기가 끝나고 조금 한가

하니 온몸이 아프고 특히 어깨가 통증이 있었는데 침을 맞고 나니 한결 부드러움을 느낀다"며 "방학기간에도 봉사하는 한의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때마다 이맘때쯤이면 한방치료를 기다릴 만큼 효능이 높다"며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서 부안 농협이 틈새문화·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관재민 부군수(사진)가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직접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16년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억 원을 받아 봉덕천 정비사업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처에 부족분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권 부군수는 지난달 29일 국민안전처를 찾아 부안읍 풍수해위험 생활권 중합정비사업과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신기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운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을 요구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국민안전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부안읍 동부권역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려면 반드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

앞으로도 굳은 기회 예산처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전복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유치단은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및 오만 스카우트연맹 등을 잇따라 방문해 아프리카 주요 임원진을 만났다.

###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 정읍시, 가을철 유행 감염병 예방활동

정읍시가 가을철 유행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의 이른 발생 증가와 관련,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특히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쯔쯔가무시증 연구진과 연계해 쯔쯔가무시증 발생 위험 행태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내 3개 마을을 선정, 농작업 행태 개선에 관한 1차 예방교육 실시 후 3개월에 걸쳐 제3차 관찰(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진)을 통해 행태 개선 변화를 파악, 추후 주민 교육과 홍보활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선정된 3개 마을에 대한 1차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7월 26일 입암 원하부와 28일 소성 고화마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8월 2일에는 영원 백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초 발생 위험 행태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 등을 입어 외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Chdi Wine

GIFT SET 1.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3 | 750ml 1ea/12%

GIFT SET 4.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5 | 375ml 5ea/13%

GIFT SET 6.6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7 | 375ml 2ea/13%

Tel : 063-564-9960  
www.gangsanwine.com